

# 위기의 광주FC '승리가 필요해'

내일 인천 원정경기 벼랑 끝 승부  
수비핵 아슬마토프 경고 누적  
한희훈·이한도 카드 고민  
전남, 제주 상대 3위 도약 겨냥

프로축구 광주FC가 인천에서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광주는 8월 1일 오후 8시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2020 K리그1 1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위기의 팀'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0-1 패를 기록했다. 새 안방인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을 입고 치른 경기였지만, 아쉽게 골 침묵으로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이날 패배로 3승 2무 8패(승점 11)가 된 광주는 수원에 9위(3승 4무 6패·승점 13)를 내주고 한 계단 뒤로 물러났다.

마음과 다른 시즌을 보내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최하위' 인천을 만나게 됐다. 인천은 올 시즌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5무 8패(승점 5)로 12위에 머물고 있다. 아직 광주가 승점 6점 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린 경기인 만큼 집중력 있는 승부를 벌여야 한다. 인천전을 앞두고 전력 누수도 있다. 수비의 핵 아슬마토프가 앞선 수원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광주는 한희훈과 이한도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연속 출장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한희훈이 수비 자리로 복귀할 수 있고, 지난 시즌 팀의 리그 최소 실점의 주역이었던 이한도로 수비를 채울 수 있다. 주장 여명은 "최근 승리가 없기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베테랑들이 훈련장 분위기를 더 활기차게 이끌고 있고, 젊은 선수들도 서로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힘을 보태고 있다"며 "광주의 장점인 끈끈한 조직력은 '원팀'이라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인천 원정에

서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전남드래곤즈는 제주로 가서 3위 자리를 노린다. 전남은 오는 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2020 K리그2 1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4경기 연속 무패 중인 전남은 이번 대결을 통해서 3위를 겨냥한다. 전남은 앞선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K리그 데뷔 10분 만에 골을 터트린 에르난데스의 활약으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 무승부로 승점 18(4승 6무 2패)를 만들며, 대전시티즌에 1-2로 패한 3위 제주(6승 2무 3패·승점 20)에 승점 2점 차로 접근했다. 이번 대결에서 전남이 승리를 거두면 두 팀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전력 강화를 이룬 전남은 앞선 경기에서는 에르난데스의 동점골로 웃었다. 12경기에서 7골만 내준 전남의 수비도 든든하다. 전남이 승리로 5경기 연속 무패를 장식하고, 3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8월 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1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윌리안(가운데)이 공을 다루는 모습. <광주FC 제공>

## K리그 '응원의 힘' 진짜였다... 무관중 홈팀 승률 9%P 하락

K리그2는 11.5%P나 떨어져  
유럽리그서도 승률 큰 폭 하락

코로나19 탓에 전례 없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홈팀의 승률이 예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무관중으로 치러진 2020시즌 K리그1 13라운드까지와 K리그2(2부 리그) 12라운드까지 경기의 홈팀 승률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올 시즌 치러진 총 137경기 중 홈팀이 승리한 경기는 43경기, 무승부는 38경기였다. 무승부 1경기당 0.5승으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홈팀이 45.2%의 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리그에 지역연고제가 정착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러진 총 7845경기에서의 홈팀 승률 54.2%보다 9%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리그별로 살펴보면 K리그1은 지난 시즌 홈팀이 54.2%의 승률을 보였으나 올 시즌 무관중 라운드에서는 승률이 50.0%로 '반타락'에 그쳤다. K리그2는 하락 폭이 더 컸다. 지난 시즌 50.5%였던 홈팀 승률이 39.0%로 푹 떨어졌다. 관중의 함성이 실제 승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홈 어드밴티지'가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관중이 없어지자 홈팀 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시즌 중 무관중으로 전환해 리그를 마친 유럽 리그에서도 나타났다. ESPN에 따르면 2019-2020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의 무관중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리만 따진 홈팀 승률은 21.7%였다. 3월 리그가 중단되기 전까지 홈팀은 43.3%의 승률을 기록했다. 승률이 절반으로 낮아진 것이다. 반면 원정팀의 승률은 중단 전 34.8%에서 47.8%로 경종 뛰었다. 무관중 라운드에서는 오히려 원정팀의 승률이

훨씬 높았다.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였다. 에스토니아 리그와 체코 리그는 무관중 라운드 홈팀 승률이 각각 37.9%, 31.2%로 예년보다 낮았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홈 팬들의 응원이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선수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관중 경기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K리그는 오는 주말 경기부터 '유관중'으로 전환한다. 방역 당국과 한국프로축구연맹 지침에 따라 구단들은 경기장 전체 수용 인원의 10% 내로만 관중을 받는다. 소리 지르기, 응원가, 어깨동무, 메가폰이나 부풀리기 사용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응원 행위는 금지되며 관중석에서 물과 음료 외에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연합뉴스

## 오랜만에 조코비치-나달 대결 보나요?

22일 개막 웨스턴&서던 오픈 테니스 출전자 명단 포함



조코비치



나달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8월 재개되는 남프랑스 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 서던 오픈(총상금 629만 7080달러)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TP 투어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웨스턴 & 서던 오픈의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0위 내 선수 가운데 16명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 랭킹 8위 이내 선수 중에서는 무릎 수술로 이번 시즌을 이미 마무리한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만 빠졌다. 웨스턴 & 서던 오픈은 3월 코로나19 때문에 ATP 투어 일정이 중단된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첫 대회다. 이 대회는 원래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장소를 뉴욕으로 변경했다. 이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31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US오픈이 시작된다. 따라서 조코비치와 나달이 웨스턴 & 서던 오픈

에 출전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US오픈에도 나갈 가능성이 크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 서던 오픈에도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 등 상위 랭커들이 출전자 명단에 포함됐다. 여자 대회에는 세계 랭킹 상위 10명 가운데 윌리엄스를 포함해 5명이 나온다. 세계 1, 2위인 애슐리 바티(호주)와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는 출전하지 않는다. WTA 투어는 8월 1일부터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리는 팔레르모 레이디스 오픈으로 시즌 일정을 재개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회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이 대회 1회전에서 패한 것과 같은 '제로 포인트'가 랭킹에 반영돼 세계 랭킹에서 다소 손해를 보게 된다. 조코비치와 나달은 앞서 US오픈 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8월 미국 대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연합뉴스

##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열고 출범



강진군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했다. 30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강진군은 전남 강진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사진>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차재훈 상임부회장, 윤재현 강진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백영중 이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규약(안)과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진군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

회를 꾸리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 장애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도 열었다. 강진군 장애인체육회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0번째로 출범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창립지원비 500만원과 행정운영비 월 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월 100만원을 강진군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한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을 통해 4000여명의 강진군장애인에게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등 9월 국제대회 줄줄이 취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이 취소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BWF는 코리아오픈을 비롯해 9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BWF 월드투어 대회가 모두 취소됐다고 30일 밝혔다. 취소된 대회는 대만오픈(슈퍼 300), 코리아오픈(슈퍼 500), 중국오픈(슈퍼 1000), 일본오픈(슈퍼 750) 등 4개다. 이들 대회는 각각 9월 1~6일 대만 타이베이, 8~13일 한국 광주, 15~20일 중국 광저우, 22~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토마스 룬드 BWF 사무총장은 "선수들과 관중, 자원봉사자, 협회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라며 "대회를 취소해 안타깝지만, 현재는 모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BWF는 지난 3월 11~15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전영오픈(슈퍼 1000)을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코리아오픈에서는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강철비2: 정상회담
2관	강철비2: 정상회담, #살아있다, 고 피쉬!
3관	반도
4관	강철비2: 정상회담
5관	반도
6관	강철비2: 정상회담
9관	강철비2: 정상회담
7관 씨네커플	강철비2: 정상회담, 알라딘, 세인트 주디
8관 씨네커플	모든 것을 벗어던진 특별한 여행, 반도, 빅사크 3: 엘리먼트스 대소동, 존 워: 특별판, 1942: 언노운 배틀, #살아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